

과업 19: 이주민

협업 구성을 위한 도입 질문

교회, 초교파 단체, 일터의 기독교인들은 고국에서 이주하여 정착하는 많은 사람과 집단에게 다가가서 제자화 하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가?

설명

우리 시대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고국을 떠나 이주한다. 이주하든지 난민으로 고국을 떠나든지, 혹은 해외로 교육이나 취업을 위해 떠나든지, 이주민은 공동체 형성, 민족 정체성, 종교적 표현, 경제적 지위 등 다양한 범위의 도전을 경험한다. 이러한 도전은 그들이 살고, 배우고, 일하고, 놀고, 쇼핑하고, 봉사하는 곳 어디를 가든 남을 세우며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따뜻하게 전하고 온 삶을 아우르는 제자를 형성할 기회를 창출한다.

전 세계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함에 따라, 이 대화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의 사항을 탐구한다:

협업 질문

- 우리는 어떻게 디아스포라 공동체에 지혜롭게 다가가서 섬길 수 있는가?
- 우리는 어떻게 난민에게 지혜롭게 다가가서 섬길 수 있는가?
- 우리는 어떻게 유학생들에게 지혜롭게 다가가서 섬길 수 있는가?
- 우리는 어떻게 이주 노동자들에게 지혜롭게 다가가서 섬기고, 특히 전통적인 기독교 선교가 거의 막힌 환경에 파견되어 일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힘을 북돋울 수 있는가?
- 이런 일들을 더 잘 성취하려면 어떤 실행 계획/협업이 필요한가?
- 이런 집단들과 공동체 개발과 연합을 위한 지혜로운 실천은 무엇인가?

하위 주제

- 디아스포라
- 난민
- 유학생
- 이주/국제 노동자
- 이주민

2024 서울-인천 대회 준비

대위임령 현황 보고서의 다음 섹션을 읽어보라.

- 로잔 신학위원회가 작성한 서론
- 1부, 텍스트와 그래픽으로 구성된 전 세계적인 대위임령 현황
- 2부, '이주민'에 관한 논문
- 3부, 주로 당신이 섬기는 지역교회나 선교단체가 위치한 특정 지역에 관한 자료